

경영인과 공직자는 어떤 책 읽나

최신 경영이론서, 미래서가 주류 ... 독서습관은 각양각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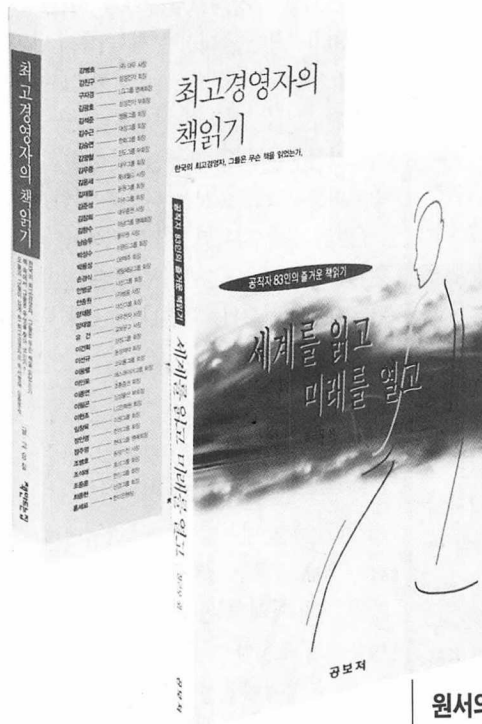
기업인과 공직자는 어떤 책을 읽을까? 이 물음에 답을 주는 두권의 '책읽기'가 나왔다. 《최고경영자의 책읽기》(책만드는집)와 《세계를 읽고 미래를 읽고》(공보처)가 그것. "나에게 너의 책들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말해주겠다"는 독서격언처럼, 그가 읽은 책을 통해 그 사람의 면모를 가늠할 수 있다.

기업가들 대부분 '다독'

'기업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궁금증이 《최고경영자의 책읽기》를 낳았다. 경제현장을 취재하면서 고승철(경향신문 경제부 차장)씨는 기업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지 의문이 일었다. 여러 행태 가운데 독서행위에 초점을 맞춰 주로 무슨 책을 읽고, 감명을 준 책은 어떤 책이며, 최근 읽은 책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독서행태와 함께 기업인의 성장배경과 경영스타일도 소개했다.

기업인이 주로 읽는 분야는 경영 관련 실용서적과 동서양의 고전, 그리고 이른바 베스트셀러로 불리는 책들. 실용서로는 경영의 최신 흐름을 소개한 이론서, 미래예측서 등이 주류를 이루는데 강병호(주식회사 대우)사장의 추천도서목록이 그 단적인 예다. 강사장은 임직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미래 기업》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기업혁신 팀 경영》 《과학과 기술의 경영학》 《뉴 리더십》 등을 들었다.

고전 쪽에서는 《삼국지》가 단연 압도적.



정몽구(현대그룹)회장이 《삼국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중에 그룹의 임직원들마저 《삼국지》 읽기에 바쁘다. 《명심보감》 《논어》 《난중일기》 《군주론》 《죄와 벌》 등도 기업인 고전도서목록을 구성한다.

읽는 책은 엇비슷해도 독서습관은 각양각색이다. 김영철(진도그룹)부회장은 책방에 가면 이 책 저 책 마구 골라잡는다. 표지가 예뻐서, 제목이 좋아서, 목차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집어든 책이 책방을 나설 때면 어깨를 내리누른다. 교육부에서 펴낸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산 적도 있는데, 요즘

학생들은 무얼 배우는지 궁금해서였다.

남승우(풀무원)사장은 책에서 받은 감동을 억누를 길이 없어 저자를 만나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회적인 장기축적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경영학적 사고의 틀》을 쓴 윤석철 교수, 최고 경영자의 공익정신을 강조한 《최고경영자의 자기진단》의 고바야시 다다시, 그리고 과학기술해설서 《미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지은 이인식씨 등이 남사장을 감동시킨 저자들이다.

원서의 비중 높아

《세계를 읽고 미래를 읽고》에는 '공직자 83인의 즐거운 책읽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국정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내가 읽은 책>에 실렸던 공직자 83명의 독후감 92편을 모았다. 사무관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이 참여했다.

공직자의 독후감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영·처세·미래예측을 다룬 실용서와 전기·회고록류의 인물관련서. 《21세기 예측》 《21세기 미래예측》 《전예측 1996 아시아》 같은 미래예측서와 《성공하는 직장인의 53가지 예절》 《한번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법》 《세계경제전쟁》 등은 기업인의

독서목록에서도 볼 수 있는 책들이다.

조지 워싱턴·헨리 트루먼·프랭클린 루즈벨트 등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전기와 베이커·맥나마라·패튼·프웰 같은 미국의 직업관료나 장성의 회고록도 우리나라의 고위관료가 눈여겨보는 분야다. 물론 민주주의와 행정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선례를 참고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편중의 책읽기는 아쉬운 대목이다. 더구나 그러한 책들이 우리말 번역이 돼 있지 않은 '원서'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더욱 그렇다.

사실, '공직자의 책읽기'에서 외국도서의 비중은 높은 편이다. 전체 92권 가운데 37권으로 3분의 1을 상회한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수준이 높아진 점은 뿌듯하지만, 국내 필자의 책과 번역서에 대한 관심이 아쉽다.

그런 점에서 《환경정의를 위하여》 《위기의 지구》 《환경경제혁명》 등 세권의 독후감이 돋보인다. 세권 모두 번역서라는 점이 아쉽기는 해도 개발 위주의 성장정책에서 탈피해 우리 판로 사회에도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화두가 스며들 여지가 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기업인과 공직자의 '책읽기'는 그들이 바쁜 가운데도 부지런히 책을 읽는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일반인이나 이른바 신세대보다는 훨씬 많은 독서량을 자랑한다. 유건(교보문고)사장이 "책을 너무나 읽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 같다"고 개탄할 정도로. —최성일 기자

호클 전문출력센터

삼화전산

Tel:263-2651/3 Modem:277-8097/8 Hitel:sawh
상담:강종욱 실장

출판 · 편집 · 조판

아직도 조판을 외주에 의존하십니까?

이제 손쉬운 단행본부터 사내에서 직접 조판을 시작해 보십시오. 귀사에 단 한 대의 컴퓨터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한권의 투자없이 조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즈넷으로 입수되는 원리본이 PC를 이용, 직접 작업해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면 등 조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회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 Windows95 Windows 모든 응용프로그램 Corell DRAW Photoshop
- 호클 All Version 호클 96
- 출력 분판/필름/인화지/레이저
- 漢字 100% 고어 완벽 지원

찾아오시는 길

3.4호선 퇴계로
삼화전산
영리빌딩
중부빌딩
자보빌딩